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

김태환, 김은란, 신휴석, 이해민, 박미래, 이혜진

제7호
2021년 4월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7호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



Not for sale



Contents



02 요약 및 시사점



03 전국 소득 현황 및 변화

- 03 소득지표로 보는 전국 경제규모의 변화
- 04 전국 1인당 소득 및 가구소득의 변화



05 수도권대 비수도권 소득 격차

- 05 2019년 수도권의 지역총소득은 비수도권의 1.3배
- 06 2019년 수도권의 종합소득세는 비수도권의 2배
- 07 지역 소득규모의 수도권 편중 지속
- 09 2019년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의 79.7% 수준
- 10 2019년 비수도권 1인당 개인소득은 수도권의 90.1% 수준
- 11 2019년 비수도권 가구소득은 수도권의 약 83.2% 수준



12 사·도별 소득 변화와 격차

- 12 2019년 소득지표로 보는 사·도별 경제규모
- 13 서울과 경기도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장
- 15 사·도간 경제규모 위상 변화
- 17 2019년 사·도별 1인당 소득 및 가구 소득
- 18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와 울산의 우위 지속
- 20 1인당 개인소득의 증가와 서울의 부상
- 22 가구소득의 차별적 변화양상과 세종의 부상
- 24 지역총소득 규모의 사·도간 격차 점차 확대
- 25 종합소득세의 사·도간 불균형의 지속
- 26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의 사·도간 격차는 미미



27 도·농 소득의 격차와 불균형

- 27 도·농 소득 격차의 심화
- 28 도·농 소득 격차와 불균형 해소 필요



29 코로나로 인한 소득 격차와 불균형

- 29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분위별 월평균소득 격차 소폭 상승
- 30 코로나 기간 동안 노령인구의 월평균소득 감소

31 부록





요약

- 2000년부터 2019년 까지 지역총소득(통계청 지역소득)과 종합소득세(국세청 국세통계)로 전국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1인당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의 경우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
-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비수도권의 1.3배, 종합소득세 비중은 2배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의 79.7%, 1인당 개인소득은 90.1%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수도권의 약 83.2% 수준
 - ※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은 통계청(지역소득), 가구소득은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2019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경제규모를 살펴본 결과 지역총소득은 경기도, 종합소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큰 값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지역총소득은 울산, 서울, 충남 순으로,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과 울산, 가구소득은 세종, 서울, 경기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시·도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광역 시·도별 지역총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제규모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임
- 도시소득의 증가로 1994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도·농 소득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점차 고착화 진행
- 코로나 기간동안 소득분위별 격차가 상승하였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월평균소득이 감소하고, 20대의 월평균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
 - ※ 월평균소득은 KCB(Korea Credits Bureau) 국토지역경제 연구용 비식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시사점

-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규모 격차가 지난 20년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간 차등적 지원과 균형발전정책 필요
-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 필요
-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저소득가구, 노령인구, 20대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I 전국 소득 현황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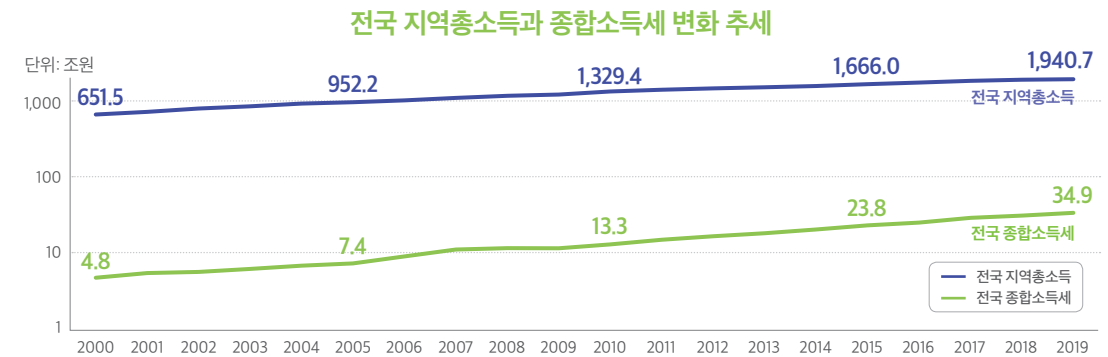


○ 소득지표로 보는 전국 경제규모의 변화

(지역총소득) 2019년 기준 1,941조원으로 2000년-2019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종합소득세) 2000년-2019년 기간 동안 전국 종합소득세는 증가 추세를 보임

전국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변화 추세

- 지역총소득은 가계, 정부, 기업이 생산하거나 자산으로 부터 발생한 부가가치로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그 규모는 지역총소득보다는 작으나 지역의 경제규모 추정에 활용 가능
- 2019년 기준 전국의 지역총소득 규모는 1,941조원으로 2000년 652조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함
- 국세통계(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 2000년-2019년 동안 종합소득세는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4조8천억 원이었던 종합소득세는 2019년 34조9천억 원으로 7.3배 증가함



용어설명 Tip

- 지역소득은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지역의 소득자료로,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임. 지역소득은 국민계정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추계하고 있으며, 기초자료와 추계방법 등에서 다소간 차이로 시·도별 지역소득의 합계와 국민소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2019년 지역소득은 잠정추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인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 (출처: 통계청, 국세통계)
-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주) 1. 통계에서 활용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함
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2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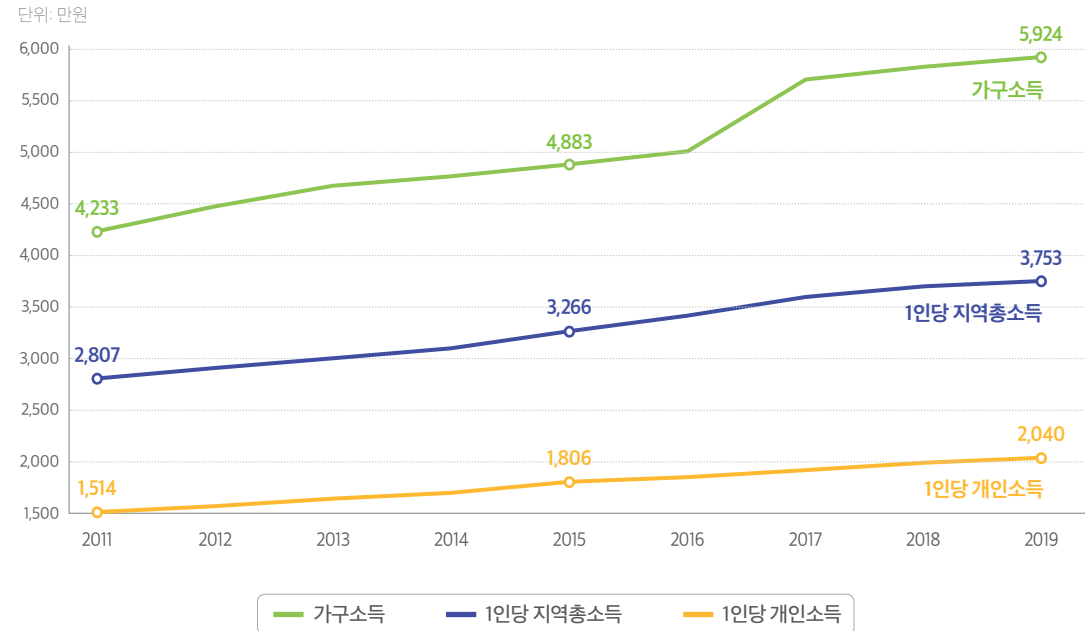
○ 전국 1인당 소득 및 가구소득의 변화

- (1인당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 2011년-2019년 동안 1인당 지역총소득과 1인당 개인소득 모두 전국 평균값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가구소득) 2011년-2019년 동안 전국 가구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가구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019년 1.4배 증가함

전국 1인당 소득 및 가구소득 추세

- 2019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전국 평균 3,753만원으로 2011년 2,807만원 대비 1.3배 증가함
 - 2019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 2,040만원으로 2011년 1,514만원 대비 1.3배 증가함
 -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 전국의 가구 소득은 꾸준히 증가함
 - 2011년 가구소득 4,233만원에서 2019년 5,924만원으로 1.4배 증가함
-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2만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전국 1인당 소득 및 가구소득 추세: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가구소득



용어설명 Tip

가구소득(경상소득)은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 1.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7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II 수도권대 비수도권 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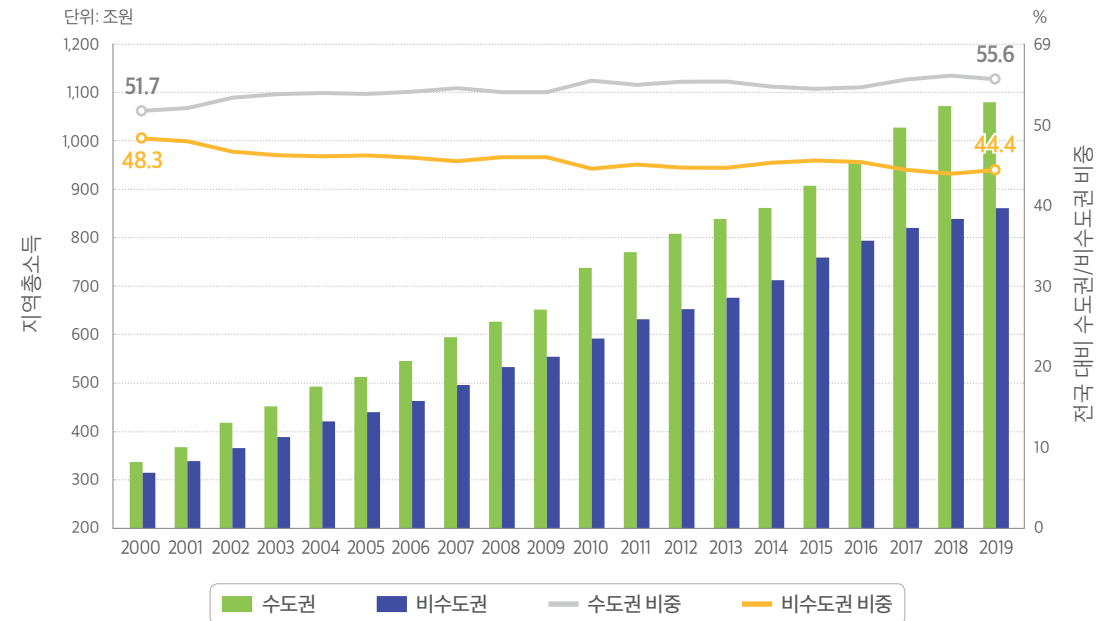
○ 2019년 수도권의 지역총소득은 비수도권의 1.3배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전국의 약 55.6% 수준으로 비수도권의 약 1.3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총소득 비중

- 2000년-2019년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51.7%-56.1% 수준을 유지하여 평균 54.4%를 기록함
- 2010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소득 격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전국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이 55.6%, 비수도권이 44.4%를 차지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총소득 비중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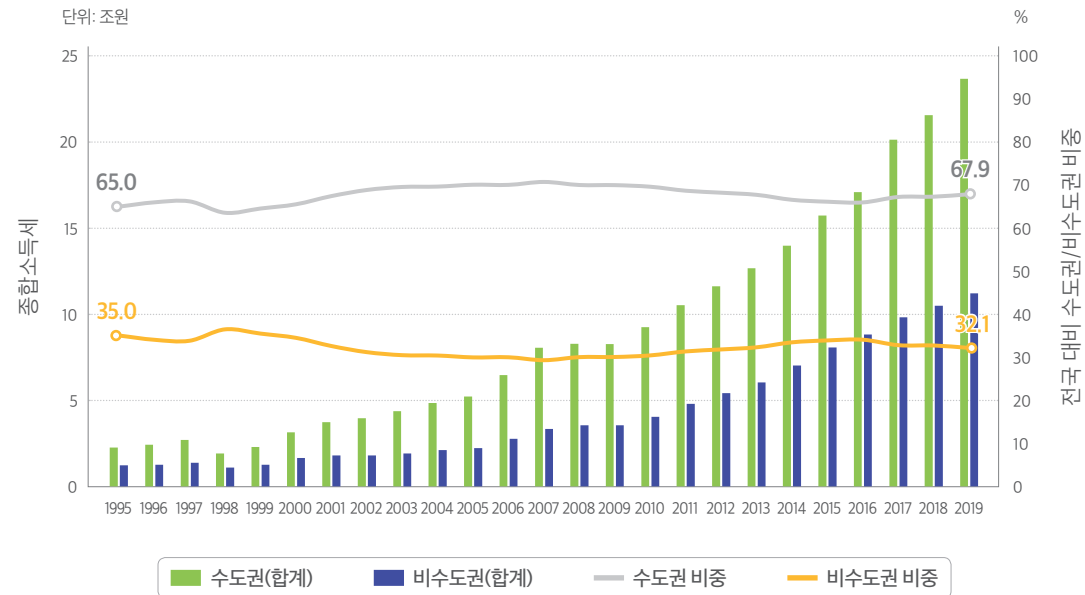
2019년 수도권의 종합소득세는 비수도권의 2배

수도권의 종합소득세 비중은 전국의 약 63.5%-70.7% 수준으로 비수도권의 약 2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종합소득세 비중

- 1995년-2019년 동안 수도권의 종합소득세 비중은 전체의 약 63.5%-70.7% 수준을 유지함
-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종합소득세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의 약 2배로 일정 수준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종합소득세 비중



* (주) 1. 통계에서 활용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함
 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2년도부터 조사됨. 울산광역시 통계는 1997년도부터 조사됨. 이 외 지역 1995년부터 조사됨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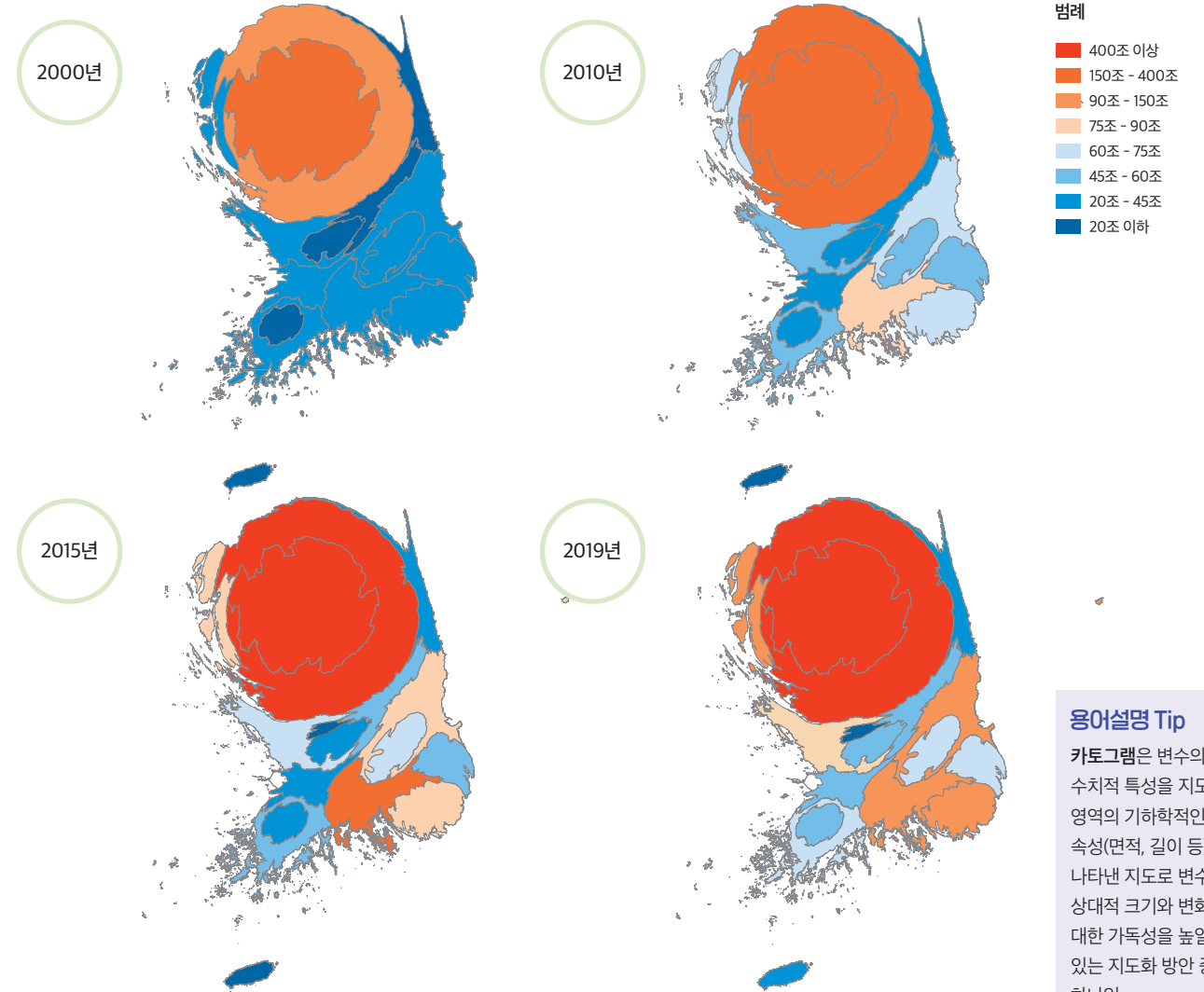
지역 소득규모의 수도권 편중 지속

(지역총소득) 광역 시·도별 소득 분포 카토그램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뚜렷함

카토그램을 통해 본 지역총소득 분포

- 지역 소득 자료를 카토그램을 통해 시각화하면 국내 소득 분포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히 파악할 수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은 조사된 지난 20여년간 개선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지역총소득 분포 카토그램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용어설명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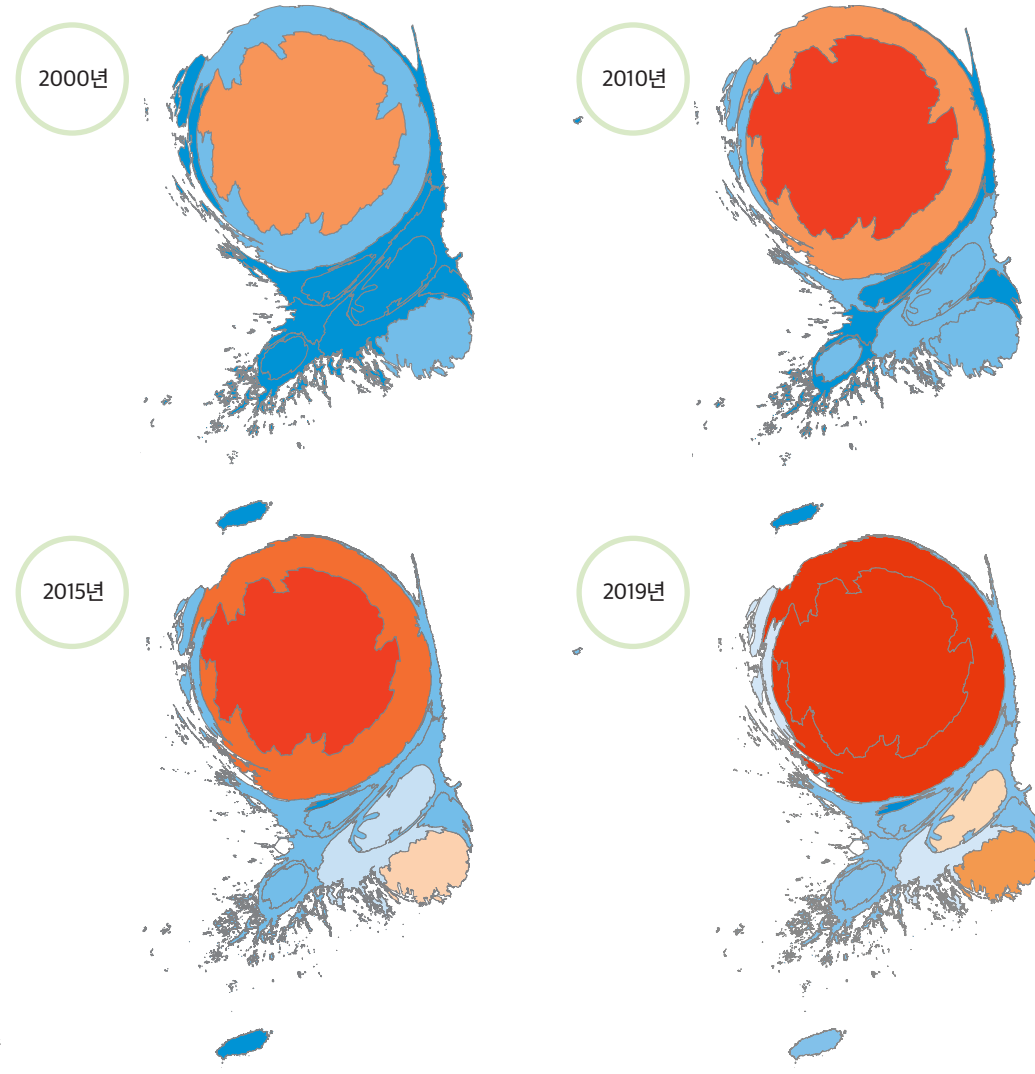
카토그램은 변수의 수치적 특성을 지도 영역의 기하학적인 속성(면적, 길이 등)으로 나타낸 지도로 변수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화 방안 중 하나임

(종합소득세) 광역 시·도별 종합소득세액 현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명확히 나타남

카토그램을 통해 본 수도권 중심의 종합소득세액의 편중 분포

- 광역 시·도별 종합소득세액 자료를 카토그램을 통해 시각화하면 수도권 중심으로의 국내 종합소득세액의 편중된 분포를 쉽게 확인 가능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은 조사된 과거 20여년 동안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음

종합소득세 카토그램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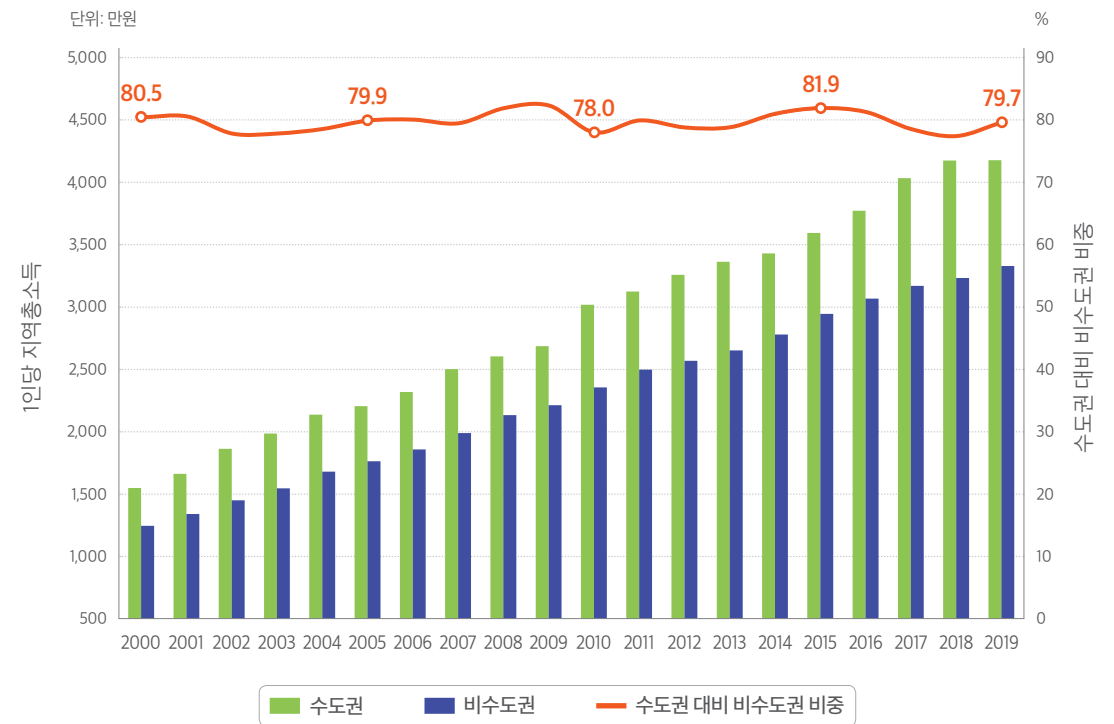
2019년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의 79.7% 수준

2000년-2019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 비교

- 2000년-2019년 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 값은 매년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77.5%-8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수도권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0년 80.5%에서 2019년 79.7%를 기록하여 지난 2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1인당 지역총소득 격차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



* (주) 수도권대비 비수도권 비중 = 비수도권/수도권×100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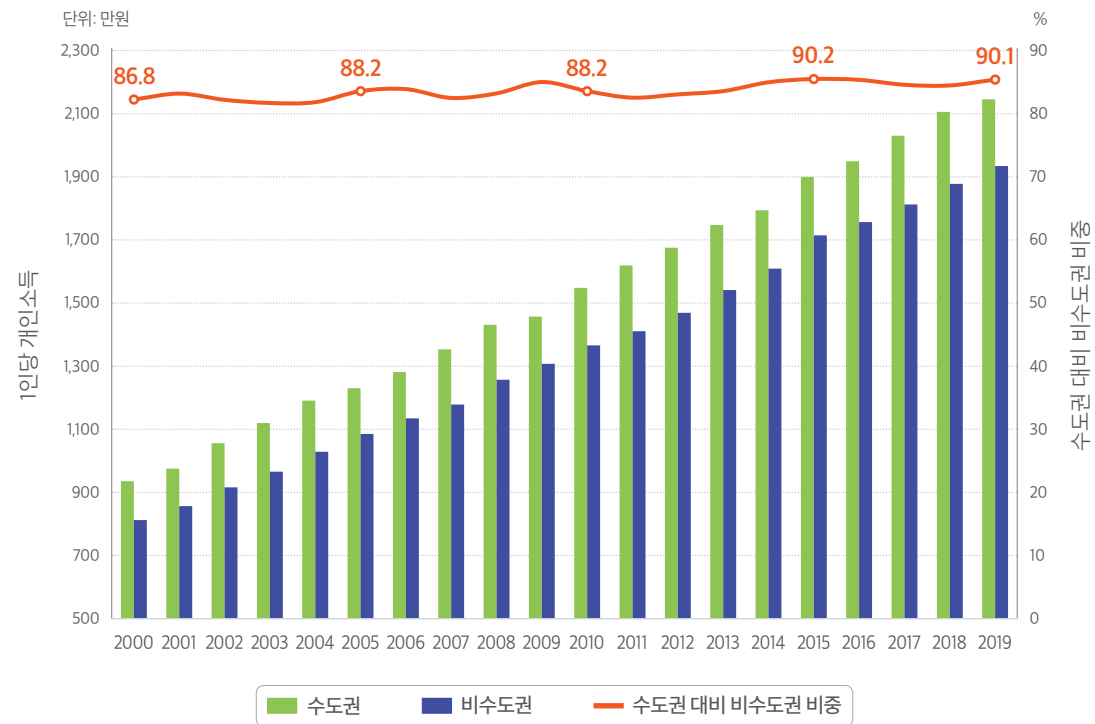
2019년 비수도권 1인당 개인소득은 수도권의 90.1% 수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대체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개인소득 비교

- 2000년-2019년 수도권의 1인당 개인소득은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86.2%-9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비수도권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00년 수도권의 86.8%에서 2019년 90.1%를 기록하여 지난 2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개인소득



* (주) 수도권대비 비수도권 비중 = 비수도권/수도권×100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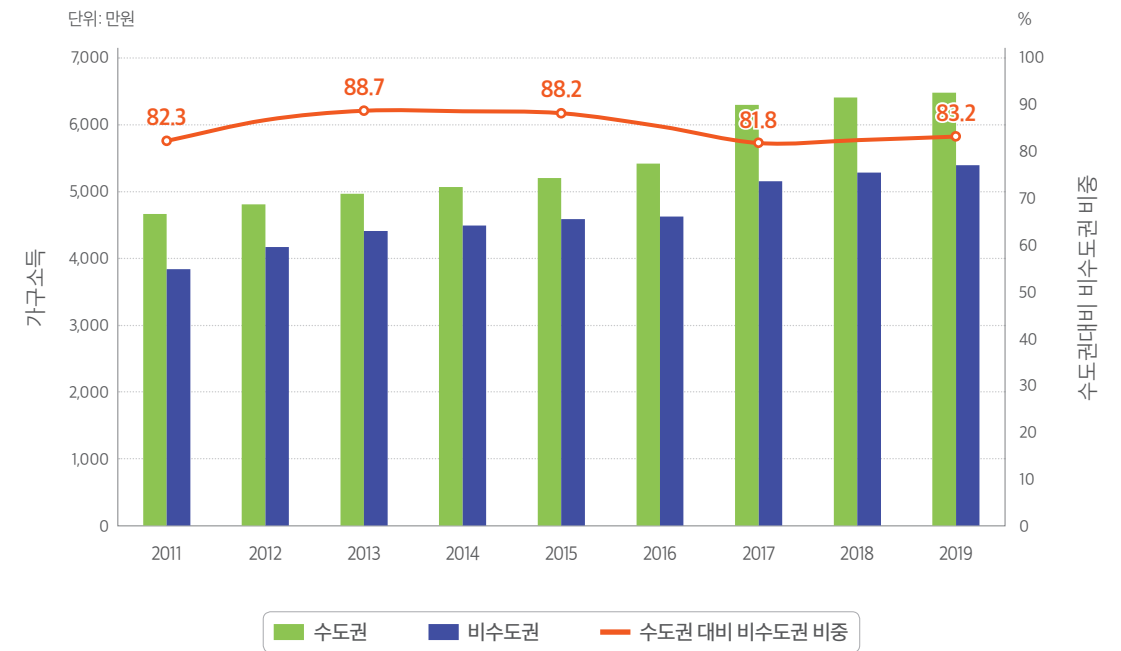
2019년 비수도권 가구소득은 수도권의 약 83.2% 수준

2011년-2019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구소득 격차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구소득 격차 추세

- 2019년 기준 비수도권의 가구소득은 수도권의 약 83.2% 수준을 보임
- 2011년-2019년 동안 비수도권 가구소득은 수도권의 약 81.8%-88.7% 사이의 추세를 나타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구소득 격차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 본 자료는 전국 2만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소득



* (주) 1.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2.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7년도부터 조사됨.
 4. 수도권대비 비수도권 비중 = 비수도권/수도권×100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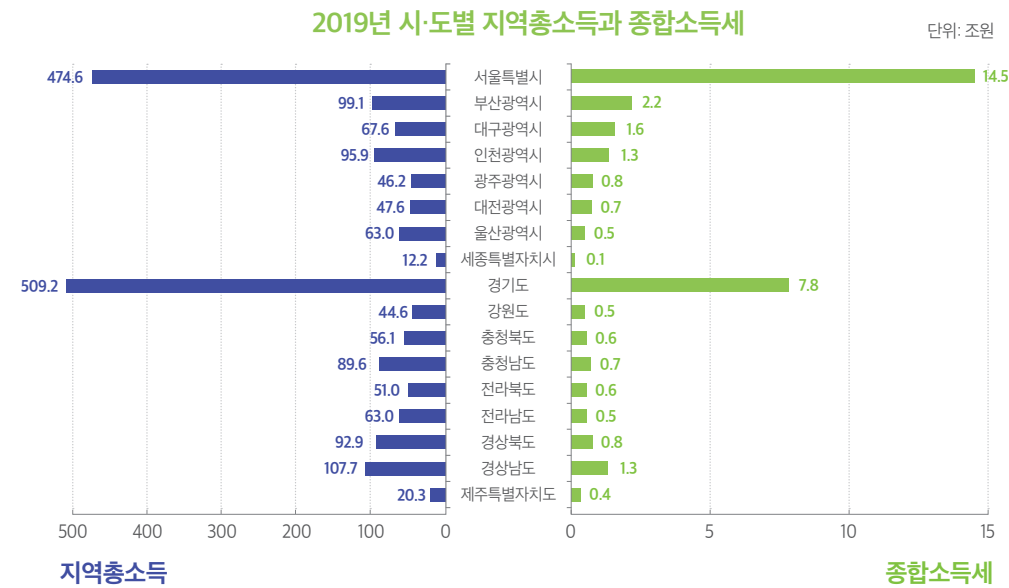
Ⅲ 사·도별 소득 변화와 격차

2019년 소득지표로 보는 사·도별 경제규모

- (지역총소득) 2019년 기준 지역총소득은 경기도가 약 509조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값을 기록했으며 서울, 경남, 부산이 뒤를 이음
- (종합소득세) 2019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서울특별시가 약 15조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값을 기록했으며 경기, 부산, 대구가 뒤를 이음

2019년 지역총소득(명목) 및 종합소득세

- 2019년 기준 지역총소득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나타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은 세종, 제주, 강원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종합소득세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나타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은 세종, 제주, 울산·강원·전남 순으로 나타남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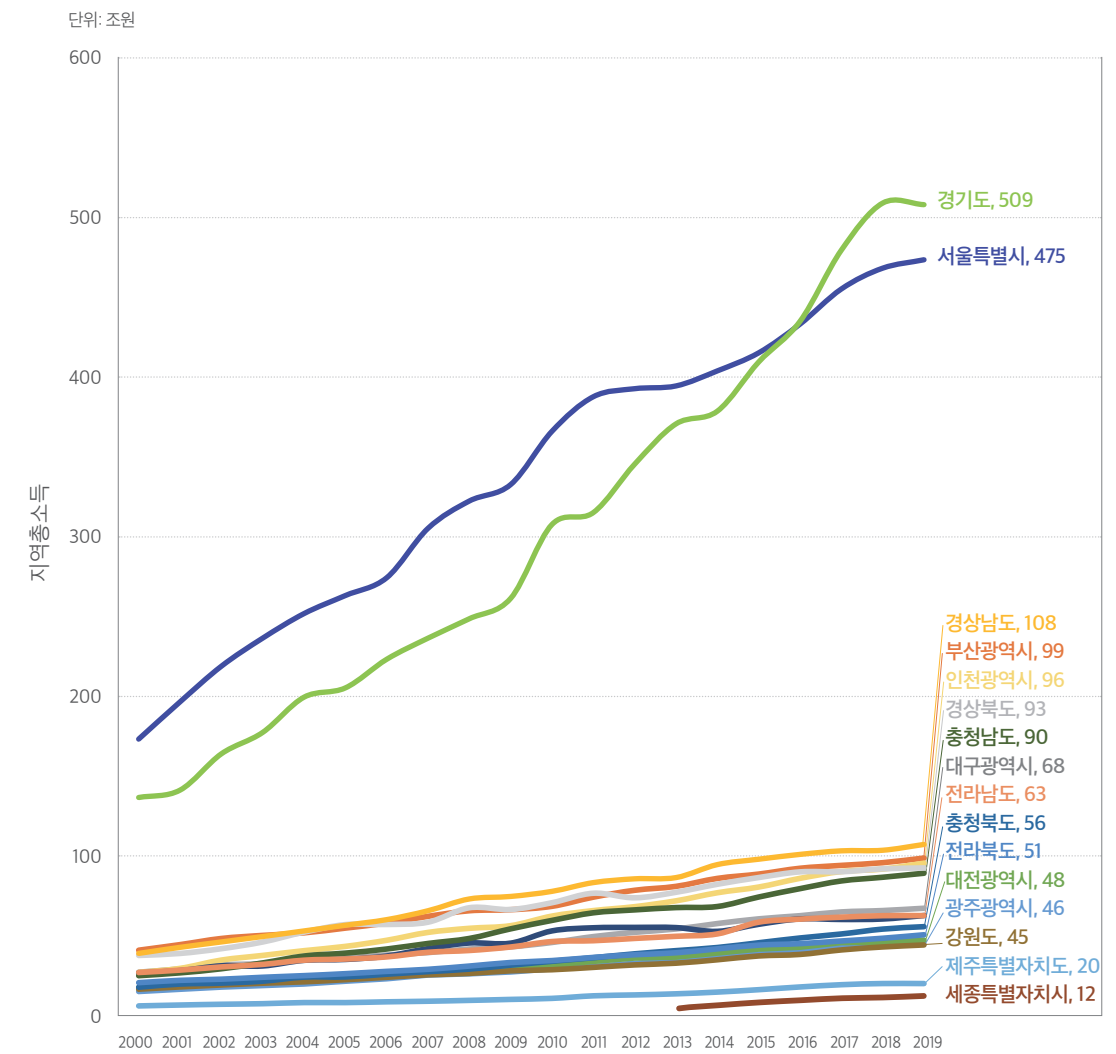
서울과 경기도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장

(지역총소득) 서울과 경기의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시·도별 지역총소득 변화 추세

- 2000년-2019년 동안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들 지역은 최근 개인과 정부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지역총소득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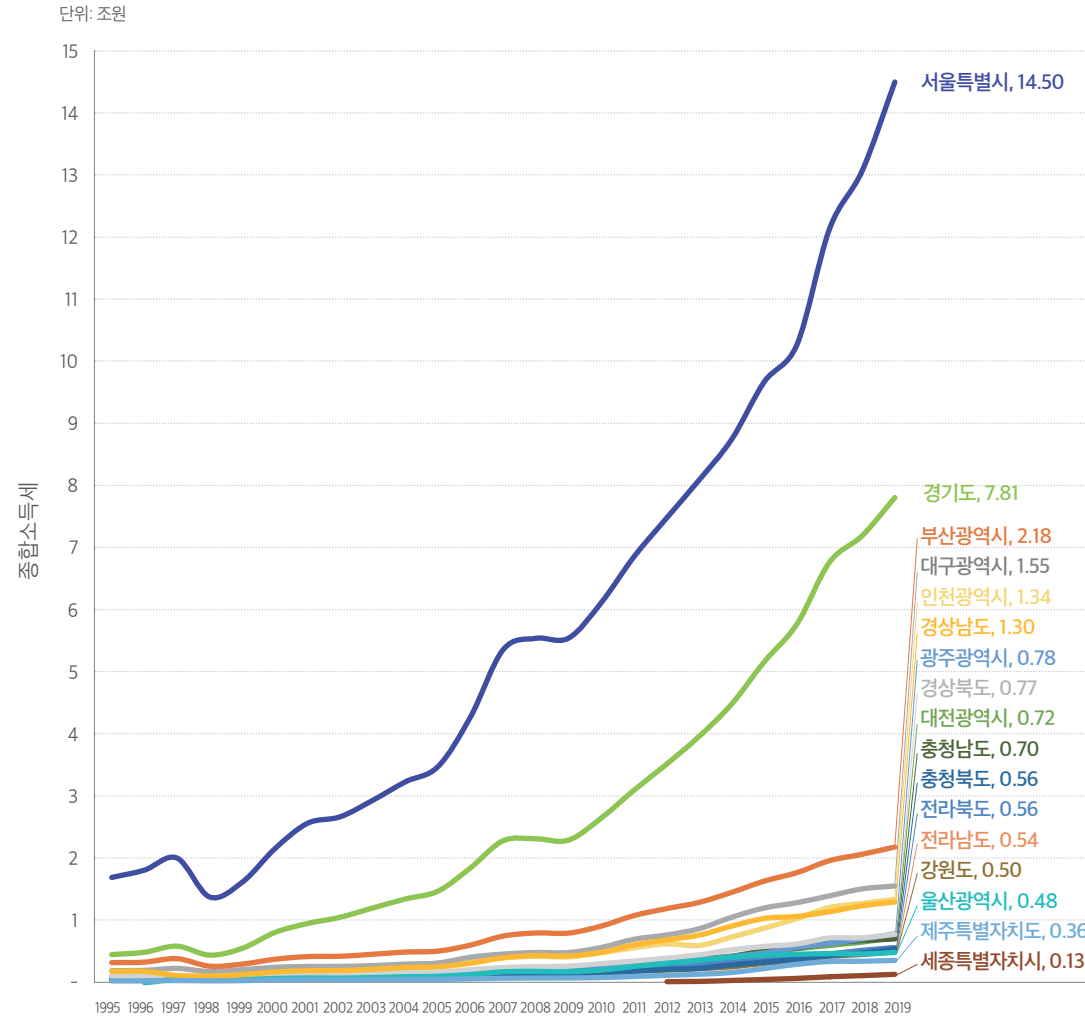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종합소득세) 서울과 경기의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시·도별 종합소득세 변화 추세

- 1995년-2019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종합소득세가 급속히 증가함

시·도별 종합소득세 변화 추세



* (주) 1. 통계에서 활용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함
 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2년도부터 조사됨. 울산광역시 통계는 1997년도부터 조사됨. 이 외 지역 1995년부터 조사됨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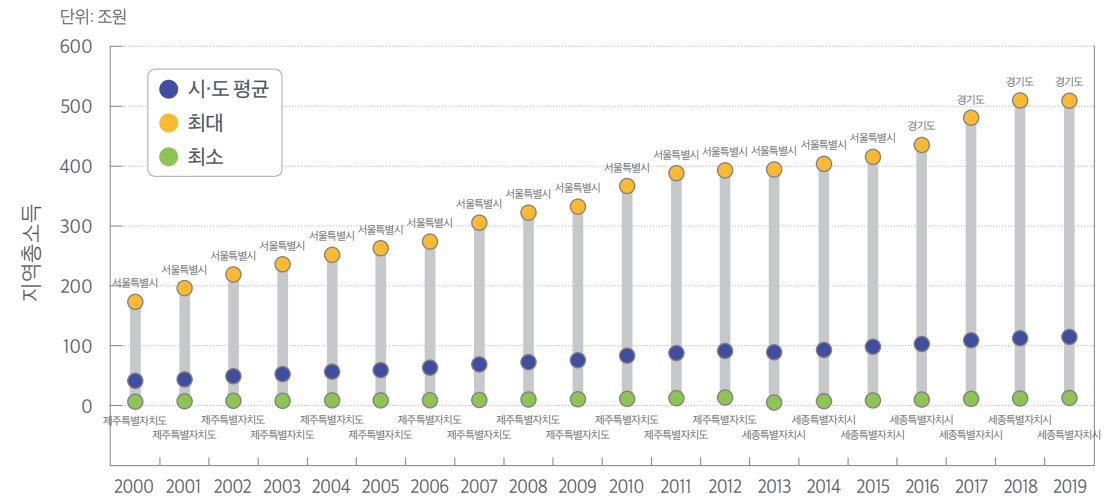
시·도간 경제규모 위상 변화

(지역총소득) 경기도의 부상과 세종시의 등장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변동

시·도간 지역총소득 위상 변화

- 2000년-2015년 동안 서울의 지역총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6년부터 경기도의 지역총소득 역전, 2000-2012년까지 제주의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았으나 2013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체
- 2019년 기준 경기도 다음으로 지역총소득이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475조원), 경상남도(108조원), 부산광역시(99조원)임
-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나타남

시·도간 지역총소득 분포 변화



시·도간 지역총소득 순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9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2	경기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10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3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4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12	충청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5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14	강원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7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15	광주광역시	강원도	강원도
8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7	-	-	세종특별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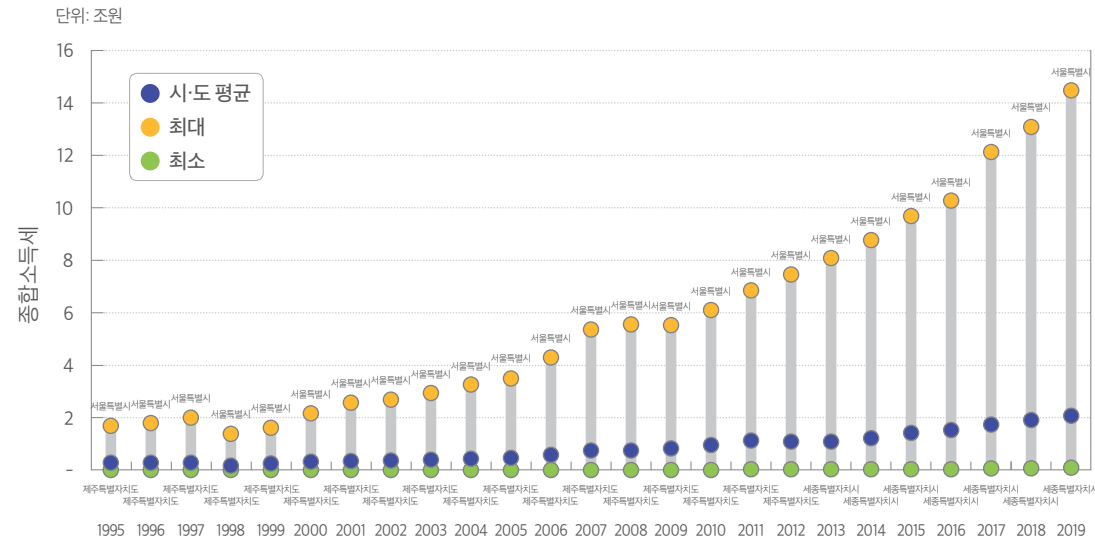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종합소득세) 서울이 지속적 우위를 지속하나 세종시의 등장으로 하위권 순위 변동

시·도간 종합소득세 위상 변화

- 1995년-2019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지역은 서울, 가장 적게 납부하는 지역은 2015년까지는 제주, 2016년부터는 세종
- 2019년 기준 종합소득세가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이고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순으로 나타남

시·도간 종합소득세 분포 변화



시·도간 종합소득세 순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9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2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10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12	강원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5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13	충청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6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14	전라남도	강원도	강원도
7	경상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15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8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7	-	-	세종특별자치시

* (주) 1. 통계에서 활용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함
 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2년도부터 조사됨. 울산광역시광역시 통계는 1997년도부터 조사됨. 이 외 지역 1995년부터 조사됨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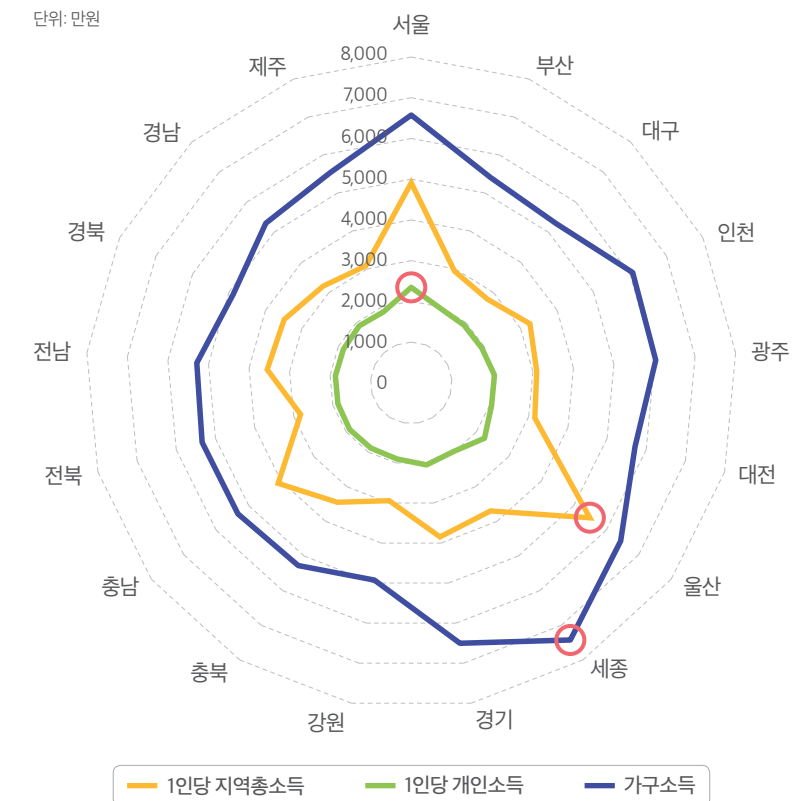
2019년 시·도별 1인당 소득 및 가구 소득

- (1인당 지역총소득) 2019년 기준 1인당 지역총소득 규모가 큰 지역은 울산
- (1인당 개인소득) 2019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 (가구소득) 같은 해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명목) 및 가구소득(경상)

- 1인당 지역총소득은 울산, 서울, 충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울산의 경우 광역 단위에서 기업소득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 울산, 광주, 경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울이 가장 높은 이유는 고소득자의 거주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가구소득 규모가 큰 지역은 세종,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가 2.5명 (통계청, 인구총조사)으로 전국 대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19년 1인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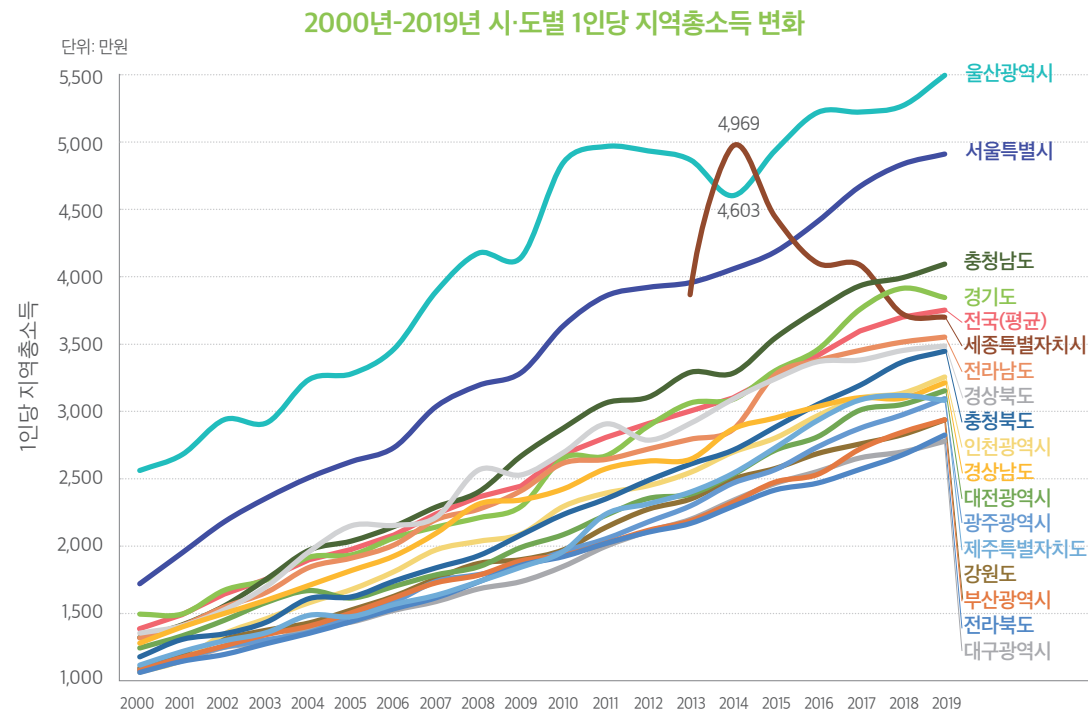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와 울산의 우위 지속

(1인당 지역총소득)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일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 전국 평균수준으로 수렴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감

-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통계가 추가되어 2014년 1인당 지역총소득 4,969만원으로 울산광역시 (4,603만원) 보다 높은 값을 기록했으나 2014년 인구 158,884명에서 2019년 346,275명으로 증가하면서 1인당 지역총소득 값이 점차 전국 평균수준에 수렴함
- 이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되면서 세종시 형성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1인당 지역총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점차 도시가 완성되고 안정화됨에 따라 인구의 직업구성이 다양해져 1인당 지역총소득이 전국 기준과 유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4년 경에 세종시의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 세종시통계연보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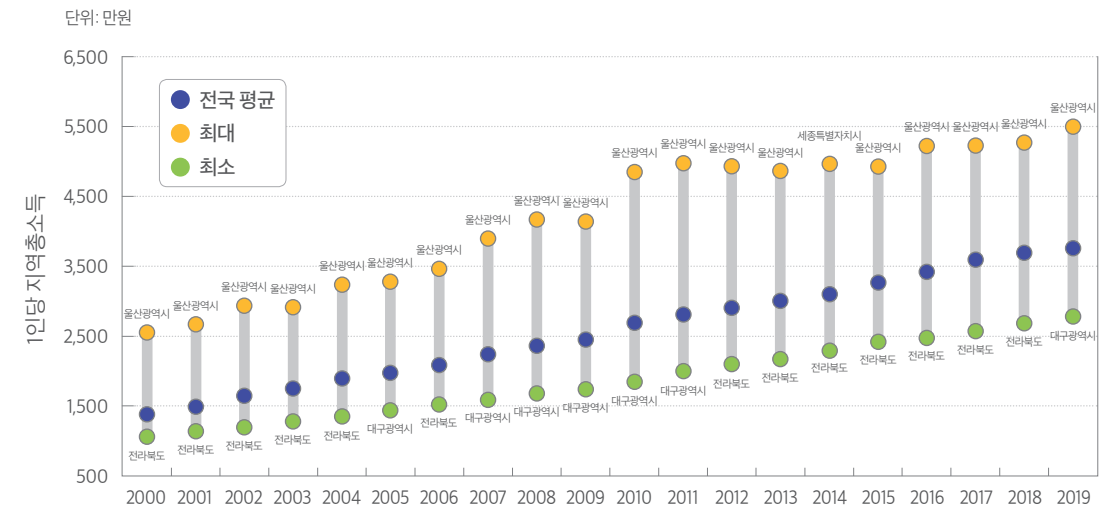
(위상 변화) 울산의 우위 유지와 전북과 대구의 약세 지속

울산광역시는 지난 19년간 가장 높은 1인당 지역총소득을 유지, 반면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위상 변화

- 2000년-2019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울산광역시가 대부분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한 반면,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함
- 울산광역시는 지역총소득 중 기업(비금융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이 있음
- 반면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인당 지역총소득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개인소득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분포변화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순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9	충청북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3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4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12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5	충청남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6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14	대구광역시	강원도	강원도
7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15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8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16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17	-	-	대구광역시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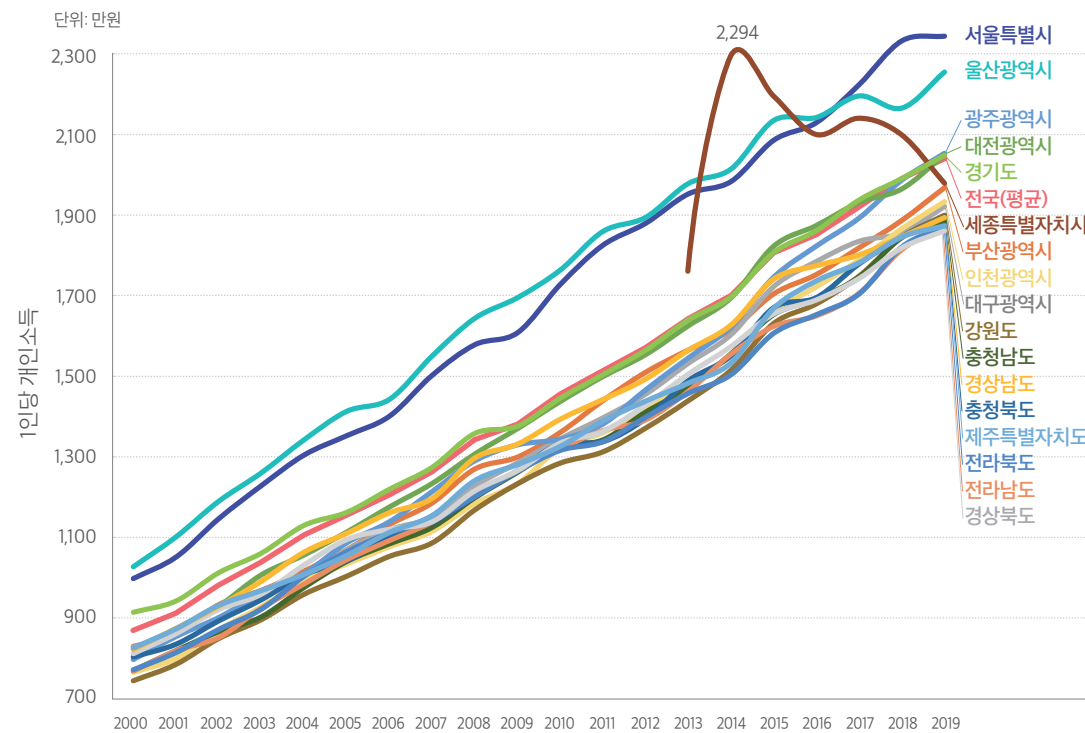
1인당 개인소득의 증가와 서울의 부상

(변화양상)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00년-2019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세종시는 형성초기인 2014년에 일시적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현재 전국 평균수준으로 수렴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증감

-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통계가 추가되어 2014년 1인당 개인소득 2,294만원으로 울산광역시 (2,014만원) 보다 높은 값을 기록했으나 점차 1인당 개인소득 값이 전국 평균수준에 수렴함
- 세종시의 1인당 개인소득이 2014년 전후로 높은 것은 1인당 지역총소득과 마찬가지로 도시조성 초기에 인구구성이 일시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2014년의 토지보상의 영향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변화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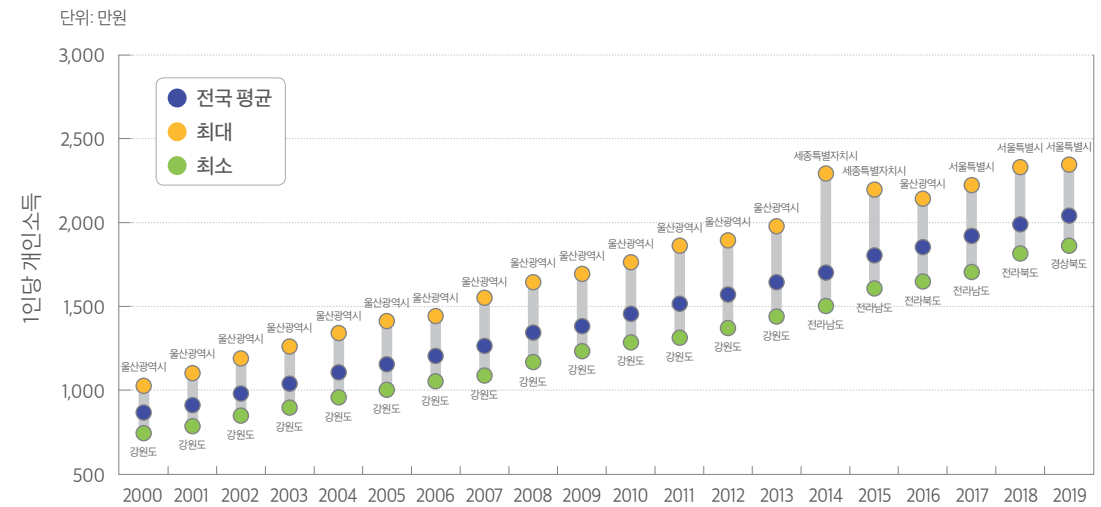
(순위변화) 서울의 부상과 최하위권의 잦은 변동

2000년-2013년에는 울산광역시의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2015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인당 개인소득은 2000년-2013년 강원도가 가장 낮았으나 최근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낮은 순위를 차지함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위상 변화

- 전국 평균 1인당 개인소득은 꾸준히 증가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시·도 중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가 최고지역으로 기록됨
- 2000년-2013년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였으나, 2014년 이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낮은 순위를 차지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분포 변화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순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순위	2000년	2010년	2019년
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9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10	충청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3	경기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11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4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12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13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6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14	전라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7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15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8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16	강원도	강원도	전라남도
				17	-	-	경상북도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용어설명 Tip

개인소득(Gross Disposable Income of Individuals)이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추계인구로 나누어 1인당 개인소득을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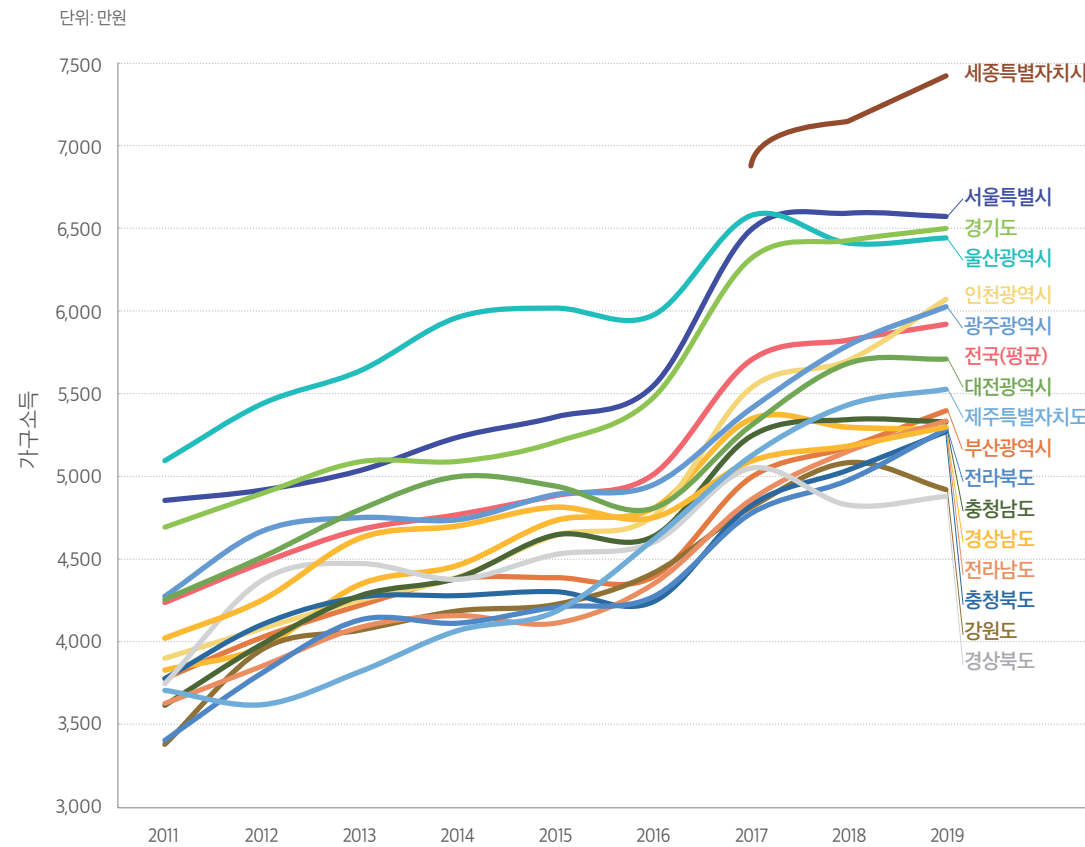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차별적 변화양상과 세종의 부상

(변화양상) 가구소득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최근 감소

시·도별 가구소득 증감

- 2019년 기준 전국(평균) 가구소득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나타남
- 2011년 대비 2019년 가구소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은 2017년에 비해 소득이 소폭 감소

2011년-2019년 시·도별 가구소득 변화



* (주) 1.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2.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7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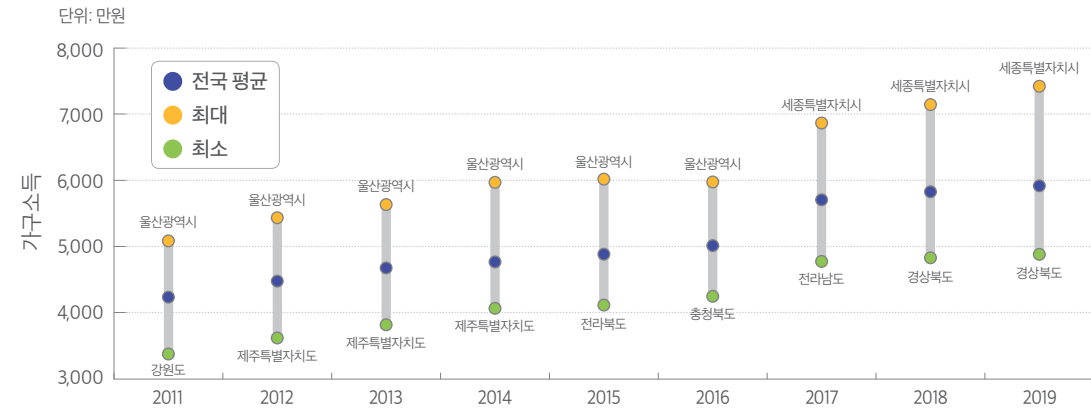
(순위변화) 세종시의 부상과 울산의 순위 하락

시·도별 평균 가구소득의 위상 변화

- 2011년-2016년 동안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나 2017년 이후 세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변화함
- 2019년 기준 가구소득 평균이 6,000만원 이상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로 나타났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유일하게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임
- 반면에,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가구소득이 5,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본 자료는 전국 2만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011년-2019년 시·도별 가구소득 분포 변화



시·도별 가구소득 순위

순위	2011년	2015년	2019년	순위	2011년	2015년	2019년
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9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3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11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4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12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13	전라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6	경상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14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7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15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8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6	강원도	전라북도	강원도
				17	-	-	경상북도

* (주) 1.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2.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7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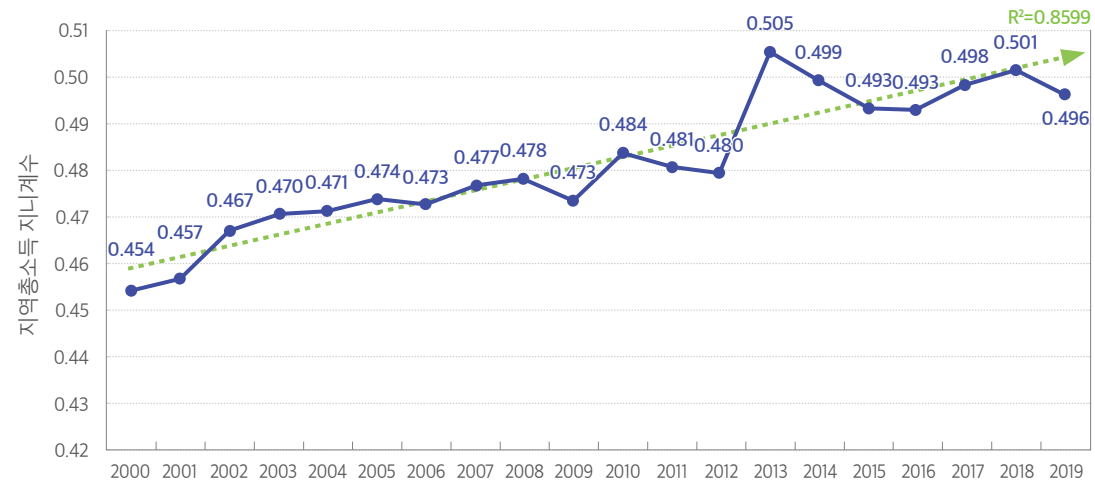
지역총소득 규모의 시도간 격차 점차 확대

광역 시도별 소득규모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의 지역총소득의 규모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

시·도간 지니계수의 변화: 지역총소득

- 2000년 광역 시도별 지역 총소득의 지니계수가 0.454로 나타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20년 기간 중 2013년 지니계수가 0.505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잠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시·도간 지역총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용어설명 Tip

지니계수는 오늘날 널리 이용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는 0, 완전불평등한 경우는 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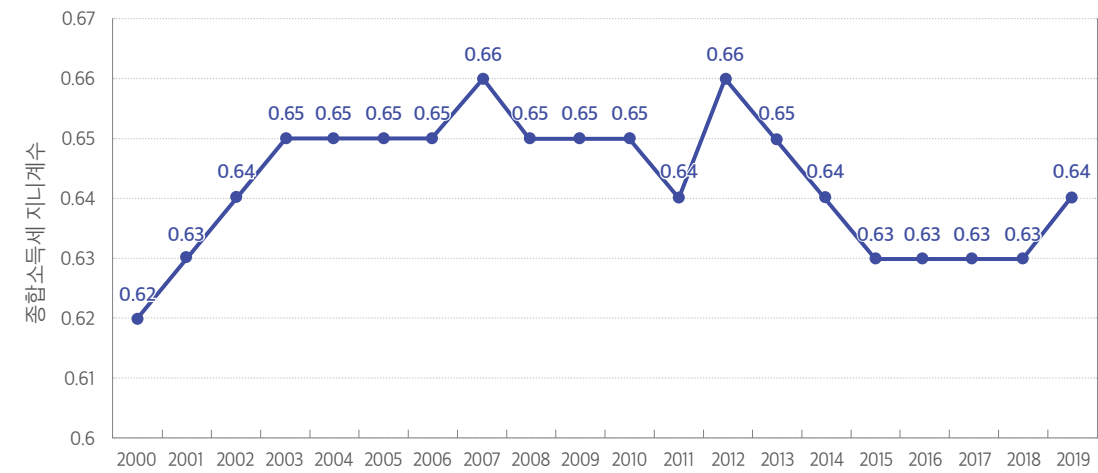
종합소득세의 시도간 불균형의 지속

광역 시도별 종합소득세의 불평등도는 심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2000년대 초반의 불평등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간 지니계수의 변화: 종합소득세

-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 종합소득세의 불평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
- 2012년에 지니계수 최고값을 보인 이후 불평등도는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 광역 시도별 종합소득세의 불평등도는 심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5년 동안 2000년대 초반의 불평등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간 종합소득세 지니계수의 변화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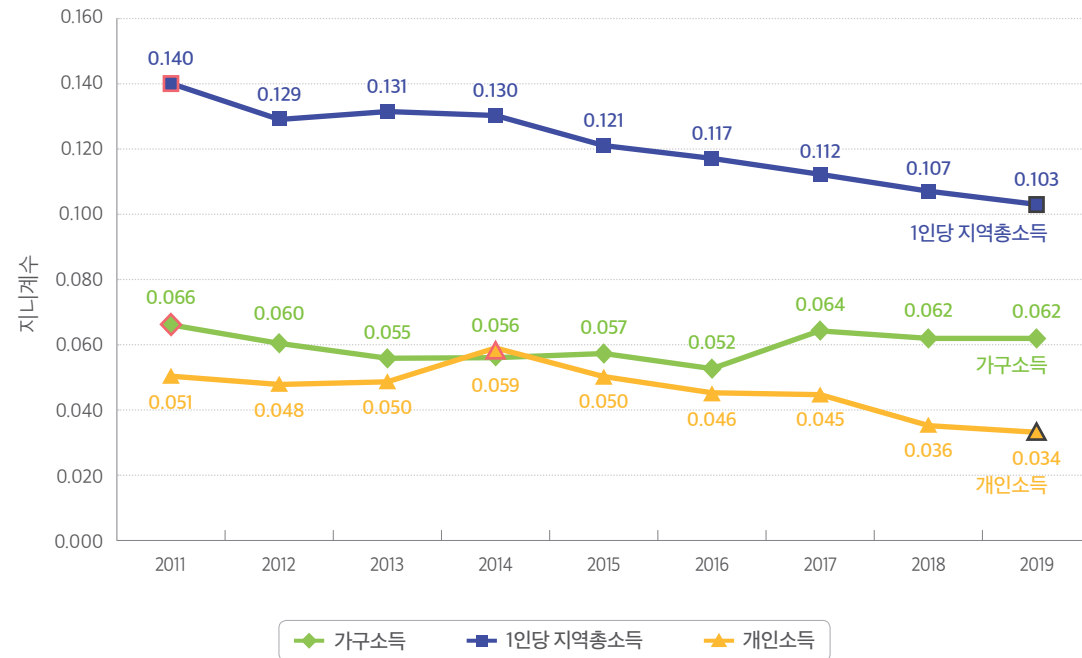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의 시·도간 격차는 미미

- (1인당 지역총소득) 광역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103-0.140으로 시·도간 격차는 미비하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개인소득) 광역 시·도별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는 0.059-0.034로 시·도간 격차는 미미
- (가구소득) 광역 시·도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052-0.066으로 시·도간 격차는 미미

시·도간 지니계수의 변화: 1인당 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 2011년 0.140으로 나타났던 1인당 지역총소득의 불평등도는 그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2014년에 0.059에 이르렀던 개인소득의 불평등도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0년대 초반 다소 완화되었던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는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017년 지니계수가 0.064에 이른 뒤부터는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2011년-2019년 시·도간 1인당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 (자료) 1인당 지역총소득과 개인소득은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IV 도·농 소득의 격차와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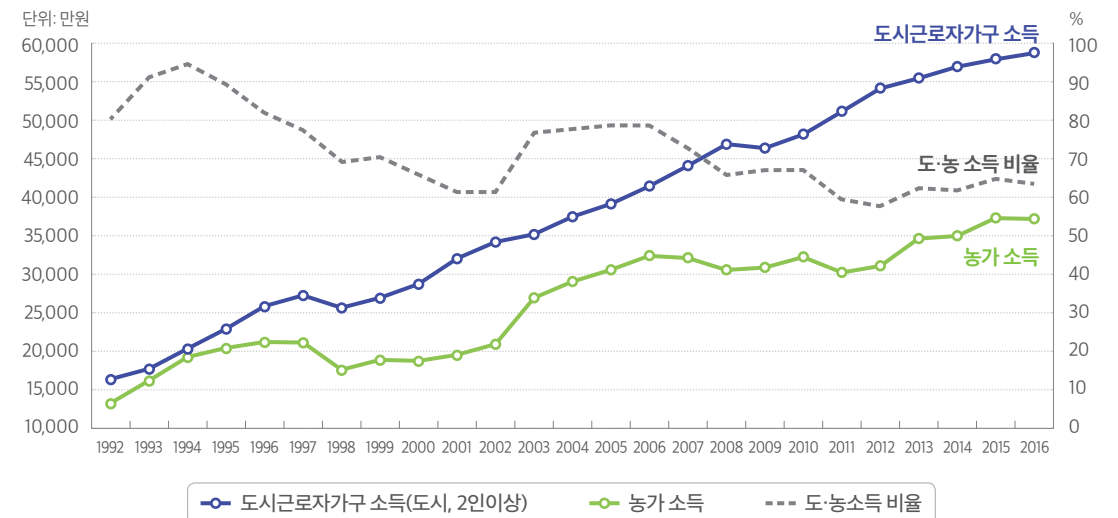
○ 도·농 소득 격차의 심화

도시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 도·농 소득 격차 최고치를 달성한 후, 일정 수준의 격차 지속

도·농 소득격차 동향

- 199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2%수준을 차지했으나, 2016년 63.5%수준에 그쳐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벌어짐
- 도시소득의 증가로 1994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도·농 소득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함
- 도·농 소득 비율은 2012년 57.6%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여 소득격차 최고치를 갱신함

1992년-2016년 도·농 소득 격차



* (주) 도·농 소득 비율은 농가소득/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100으로 계산하였음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p26 표4-1, 표4-7 참고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도·농 소득 격차와 불균형 해소 필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그간의 지역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필요

농촌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이외에 도·농 병행 거주인구, 농촌지역 관계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관계인구란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지역과 관계(緣)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칭함(차미숙, 2020)
- 일본 정부에서는 지역의 '연결' 구축을 위해 '관계인구'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소멸의 대응방안 중 하나의 전략이기도 함
 - 이주한 정주민 또는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를 활용하여 그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세대별 농업정책의 방향

- 청장년의 경우, 젊은 영농인을 영농 주체로 육성하고 소득 창출 수단으로 영농 활동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장년 집단이 농지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 경영 승계 효과를 기대
- 고령 소농 집단의 경우,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므로 복지 또는 지역 정책차원에서 농업 정책에 대한 접근을 강구할 필요

* (자료) 차미숙, 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24), p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p1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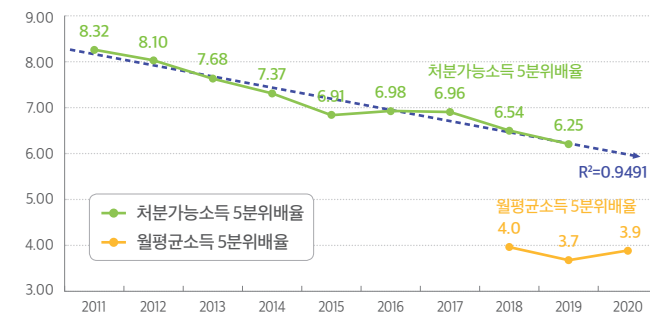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분위별 월평균소득 격차 소폭 상승

-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동안 모든 계층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소득 증가율은 크게 둔화
- 2020년에 월평균소득의 5분위배율은 전년대비 상승하여 소득분위별 격차 다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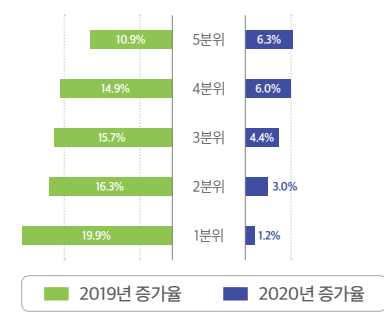
코로나 영향에 따른 월평균소득 5분위배율의 변화

-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코로나 영향이 미쳤던 2020년의 월평균소득의 5분위 배율은 2019년 3.7 대비 3.9로 소폭 상승함
- 코로나 이전에는 저소득층(1분위)의 전년 대비 월평균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저소득층(1분위)의 전년 대비 월평균소득 증가율은 가장 크게 둔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추이와 월평균소득 5분위배율 추이



소득분위별 월평균소득 증가율



소득분위별 월평균소득

소득분위	월평균소득(만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분위	131.9	158.1	160.0	19.9%	1.2%
2분위	175.3	204.0	210.0	16.3%	3.0%
3분위	216.4	250.4	261.4	15.7%	4.4%
4분위	272.7	313.5	332.3	14.9%	6.0%
5분위	525.9	583.2	619.8	10.9%	6.3%
5분위배율	4.0	3.7	3.9	-	-

* (주) 1. 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값
 2. 월평균소득은 개인(급여소득자를 중심: 약 200만명)들이 금융회사와 금융(신용)거래를 위해 등록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소득증명원 등을 기반으로 KCB가 자체 모형으로 추정된 정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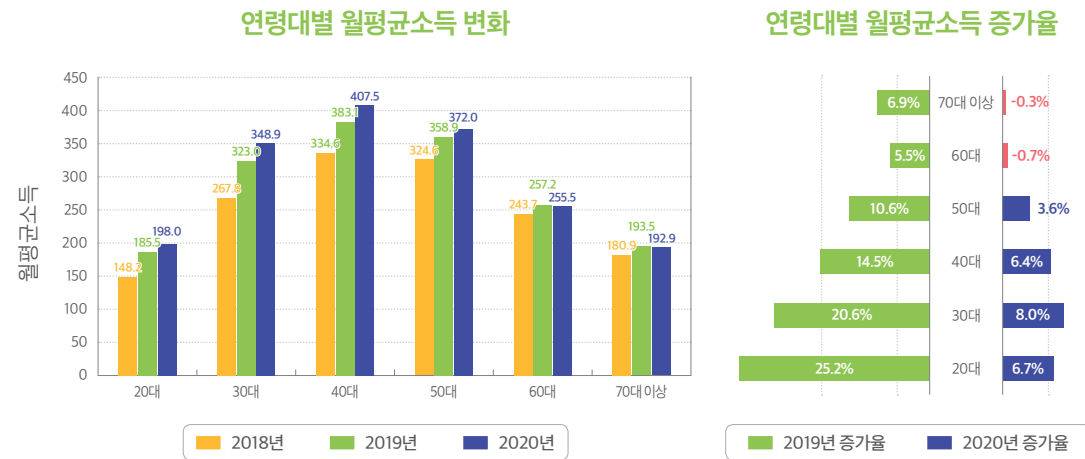
* (자료) 처분가능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월평균소득은 KCB (Korea Credits Bureau) 국토지역경제 연구용 비식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코로나 기간 동안 노령인구의 월평균소득 감소

- 코로나 기간 동안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월평균소득은 감소하였고, 다른 연령층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상승폭은 크게 둔화됨
- 코로나 기간 동안 노령인구를 제외하면 20대의 월평균소득 증가율이 전년대비 가장 크게 하락함

연령별 월평균소득 증가율의 격차

- 연령별 월평균소득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또는 높을수록 낮아짐
- 월평균소득 증가율의 변화는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큰 하락 폭(18.5%=25.2%-6.7%)이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소폭 감소함
-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높은 20대 및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월평균소득에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	월평균소득(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대	148.2	185.5	198.0	25.2%	6.7%
30대	267.8	323.0	348.9	20.6%	8.0%
40대	334.6	383.1	407.5	14.5%	6.4%
50대	324.6	358.9	372.0	10.6%	3.6%
60대	243.7	257.2	255.5	5.5%	-0.7%
70대	180.9	193.5	192.9	6.9%	-0.3%

* (자료) KCB(Korea Credits Bureau) 국토지역경제 연구용 비식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부록

1. 지역별 제도부문별 본원소득 및 비중

- 본원소득은 가계, 정부,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생산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소모분을 계상하지 않음)에서 지불됨
- 제도부문별 본원소득 비중은 전체 지역소득 중 제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지역별 제도부문별 본원소득(2019년)

(단위: 백만원)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합계
전국	455,518,164	46,357,376	257,729,472	1,181,047,809	1,940,652,820
서울특별시	107,011,401	31,620,976	54,636,392	281,340,797	474,609,567
부산광역시	15,785,161	1,809,901	10,928,129	70,596,092	99,119,283
대구광역시	8,966,135	1,408,872	7,109,232	50,131,633	67,615,873
인천광역시	20,184,360	606,052	12,557,684	62,541,532	95,889,628
광주광역시	7,928,455	962,548	4,820,406	32,535,244	46,246,653
대전광역시	6,636,495	1,073,186	6,417,958	33,470,836	47,598,475
울산광역시	17,363,274	369,387	15,321,820	29,970,956	63,025,437
세종특별자치시	1,703,416	61,045	2,777,322	7,704,491	12,246,274
경기도	144,718,578	3,918,006	54,244,827	306,317,339	509,198,751
강원도	5,765,283	289,170	9,792,671	28,729,861	44,576,985
충청북도	14,381,926	400,597	9,360,322	31,915,154	56,057,999
충청남도	28,118,055	427,483	15,603,359	45,445,354	89,594,251
전라북도	8,005,809	1,013,500	8,290,719	33,650,783	50,960,812
전라남도	14,023,819	479,534	14,339,968	34,152,386	62,995,708
경상북도	28,024,443	402,254	12,792,317	51,705,054	92,924,067
경상남도	23,719,383	1,263,466	15,393,981	67,280,302	107,657,132
제주특별자치도	3,182,170	251,398	3,342,364	13,559,994	20,335,925

지역별 제도부문별 본원소득 비중(2013년-2019년)

(단위: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2013	2019	2013	2019	2013	2019	2013	2019
전국	24.3	23.5	3.1	2.4	12.5	13.3	60.1	60.9
서울특별시	22.6	22.5	8.6	6.7	10.0	11.5	58.8	59.3
부산광역시	17.4	15.9	2.0	1.8	9.9	11.0	70.8	71.2
대구광역시	14.8	13.3	2.8	2.1	9.6	10.5	72.9	74.1
인천광역시	24.5	21.0	0.6	0.6	12.1	13.1	62.7	65.2
광주광역시	18.5	17.1	2.1	2.1	9.9	10.4	69.5	70.4
대전광역시	14.9	13.9	0.5	2.3	12.1	13.5	72.5	70.3
울산광역시	26.9	27.5	0.5	0.6	26.1	24.3	46.5	47.6
세종특별자치시	27.4	13.9	0.7	0.5	21.4	22.7	50.5	62.9
경기도	30.4	28.4	0.8	0.8	9.7	10.7	59.1	60.2
강원도	13.2	12.9	0.9	0.6	20.3	22.0	65.5	64.4
충청북도	23.1	25.7	3.3	0.7	15.0	16.7	58.5	56.9
충청남도	32.1	31.4	0.9	0.5	18.3	17.4	48.8	50.7
전라북도	15.9	15.7	2.0	2.0	14.8	16.3	67.3	66.0
전라남도	21.0	22.3	0.8	0.8	25.0	22.8	53.2	54.2
경상북도	32.9	30.2	0.5	0.4	12.0	13.8	54.5	55.6
경상남도	20.4	22.0	1.5	1.2	14.7	14.3	63.4	62.5
제주특별자치도	18.4	15.6	2.2	1.2	15.6	16.4	63.9	66.7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 시·도별 지역총소득

- 지역총소득(Gross Regional Income)이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지역외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을 더하고 지역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지역 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며, 1인당 지역총소득은 추계인구로 산출한 자료임

(단위: 백만원, %)

	2000	2005	2010	2015	2019
전국(평균)	651,518,790	952,213,913	1,329,419,726	1,666,030,416	1,940,652,820
서울특별시	173,290,530	263,537,385	366,811,472	416,105,578	474,609,567
부산광역시	40,809,344	54,799,989	68,574,215	88,975,081	99,119,283
대구광역시	27,019,597	36,036,714	45,874,511	60,880,305	67,615,873
인천광역시	26,821,478	43,313,644	62,477,718	80,819,593	95,889,628
광주광역시	14,888,469	21,412,922	29,277,536	38,681,661	46,246,653
대전광역시	17,356,319	23,720,471	31,595,852	41,837,461	47,598,475
울산광역시	26,516,226	35,127,622	53,291,275	57,466,042	63,025,437
세종특별자치시	-	-	-	8,323,500	12,246,274
경기도	136,650,562	205,517,438	308,232,665	410,303,981	509,198,751
강원도	16,355,126	22,406,870	28,755,813	37,554,025	44,576,985
충청북도	17,582,462	24,098,847	34,068,485	45,832,160	56,057,999
충청남도	24,811,652	39,078,902	59,763,225	74,561,571	89,594,251
전라북도	20,443,620	26,160,597	34,525,752	44,365,633	50,960,812
전라남도	26,803,153	35,377,490	46,508,603	58,807,056	62,995,708
경상북도	37,515,235	57,044,864	70,898,646	86,831,078	92,924,067
경상남도	38,808,138	56,581,555	78,017,832	98,317,923	107,657,132
제주특별자치도	5,846,881	7,998,602	10,746,125	16,367,768	20,335,925
수도권(합계)	336,762,570	512,368,467	737,521,855	907,229,152	1,079,697,946
비수도권(합계)	314,756,220	439,845,446	591,897,871	758,801,264	860,954,874
수도권/전국×100	51.7	53.8	55.5	54.5	55.6
비수도권/전국×100	48.3	46.2	44.5	45.5	44.4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3.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단위: 천원, %)

	2000	2005	2010	2015	2019
전국(평균)	13,860	19,762	26,828	32,658	37,530
서울특별시	17,194	26,279	36,359	41,857	49,121
부산광역시	10,933	15,263	19,724	25,773	29,388
대구광역시	10,684	14,362	18,499	24,660	27,798
인천광역시	10,633	16,779	22,945	28,034	32,571
광주광역시	10,770	14,815	19,602	25,687	30,964
대전광역시	12,425	16,138	20,855	27,125	31,548
울산광역시	25,603	32,789	48,489	49,381	54,969
세종특별자치시	-	-	-	44,463	36,983
경기도	14,940	19,343	26,528	33,028	38,466
강원도	10,791	15,049	19,315	24,761	29,392
충청북도	11,766	16,231	22,351	28,839	34,484
충청남도	13,203	20,372	28,765	35,458	40,953
전라북도	10,609	14,401	19,226	24,176	28,260
전라남도	13,171	19,110	26,168	32,733	35,532
경상북도	13,527	21,513	26,953	32,427	34,873
경상남도	12,784	18,193	24,250	29,523	32,140
제주특별자치도	11,154	14,762	19,613	27,314	30,834
수도권(평균)	14,256	20,800	28,611	34,306	40,053
비수도권(평균)	12,878	17,923	24,139	30,880	34,151
비수도권/수도권×100	90.3	86.2	84.4	90.0	85.3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4.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 개인소득은 한 국가에서 창출된 소득 중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노동의 댓가인 피용자 보수,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영업잉여, 이자·임료·배당 등과 같이 소유한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산소득, 그리고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전소득 등으로 이루어지며, 1인당 개인소득은 추계인구로 산출한 자료임

(단위: 천원,%)

	2000	2005	2010	2015	2019
전국(평균)	8,694	11,551	14,558	18,063	20,400
서울특별시	9,978	13,525	17,277	20,857	23,440
부산광역시	8,296	10,695	13,605	17,044	19,680
대구광역시	8,274	10,693	13,446	17,226	19,210
인천광역시	7,651	10,344	13,214	16,598	19,332
광주광역시	7,969	10,865	13,439	17,459	20,532
대전광역시	8,230	11,133	14,373	18,229	20,498
울산광역시	10,271	14,129	17,634	21,348	22,550
세종특별자치시	-	-	-	21,957	19,789
경기도	9,142	11,622	14,455	18,069	20,482
강원도	7,442	10,036	12,844	16,311	18,997
충청북도	7,694	10,403	13,246	16,531	18,823
충청남도	8,035	10,417	13,326	16,703	18,955
전라북도	7,684	10,448	13,197	16,239	18,725
전라남도	7,714	10,644	13,161	16,067	18,711
경상북도	8,116	10,946	13,342	16,550	18,611
경상남도	8,217	11,101	13,933	17,411	18,939
제주특별자치도	8,259	10,552	13,259	16,685	18,734
수도권(평균)	8,924	11,830	14,982	18,508	21,085
비수도권(평균)	8,169	10,928	13,754	17,554	19,482
비수도권/수도권×100	91.5	92.4	91.8	94.8	92.4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5. 가구소득(경상소득)

- 가구소득(경상소득)은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됨.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이 포함됨

(단위: 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4,233	4,475	4,676	4,767	4,883	5,010	5,705	5,828	5,924
서울특별시	4,850	4,913	5,032	5,234	5,357	5,545	6,493	6,595	6,575
부산광역시	3,774	4,025	4,219	4,380	4,387	4,391	4,995	5,181	5,402
대구광역시	3,825	3,966	4,346	4,462	4,734	4,808	5,350	5,301	5,288
인천광역시	3,896	4,078	4,249	4,389	4,642	4,758	5,535	5,704	6,075
광주광역시	4,271	4,667	4,749	4,736	4,889	4,948	5,409	5,796	6,030
대전광역시	4,252	4,510	4,799	4,999	4,941	4,806	5,308	5,688	5,714
울산광역시	5,090	5,437	5,637	5,962	6,018	5,975	6,580	6,413	6,445
세종특별자치시	-	-	-	-	-	-	6,871	7,147	7,425
경기도	4,688	4,894	5,086	5,088	5,205	5,474	6,319	6,430	6,503
강원도	3,376	3,954	4,070	4,187	4,226	4,416	4,816	5,088	4,924
충청북도	3,774	4,103	4,269	4,278	4,302	4,240	4,826	5,042	5,275
충청남도	3,612	3,985	4,278	4,386	4,647	4,637	5,246	5,348	5,334
전라북도	3,623	3,851	4,086	4,157	4,111	4,348	4,860	5,156	5,340
전라남도	3,400	3,811	4,132	4,112	4,209	4,272	4,777	4,981	5,290
경상북도	3,743	4,373	4,474	4,378	4,529	4,602	5,054	4,830	4,883
경상남도	4,018	4,251	4,627	4,701	4,815	4,751	5,095	5,187	5,303
제주특별자치도	3,703	3,616	3,817	4,066	4,181	4,616	5,124	5,437	5,531
수도권	4,666	4,809	4,969	5,068	5,203	5,421	6,299	6,412	6,483
비수도권	3,839	4,171	4,409	4,491	4,589	4,629	5,154	5,286	5,394
비수도권/수도권×100	82.3	86.7	88.7	88.6	88.2	85.4	81.8	82.4	83.2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6. 종합소득세(결정세액)

• 종합소득세(결정세액)에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단위: 백만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	3,478,045	3,669,079	4,080,024	3,015,607	3,557,819	4,803,125	5,537,259	5,745,486	6,288,663	6,943,835	7,437,191	9,232,353
서울특별시	1,693,616	1,810,862	2,006,732	1,379,410	1,616,160	2,155,702	2,565,315	2,670,087	2,935,365	3,233,234	3,478,884	4,282,919
인천광역시	114,243	120,298	106,105	93,180	127,066	182,462	214,833	231,049	234,912	252,874	257,007	330,745
경기도	451,218	488,731	587,396	443,280	552,209	808,062	952,189	1,053,131	1,202,083	1,347,747	1,473,587	1,850,344
강원도	49,474	52,828	52,780	50,337	57,062	79,689	85,290	84,398	91,118	95,717	101,538	123,471
대전광역시	65,260	65,665	78,114	65,358	74,624	106,371	110,869	112,522	122,570	131,560	144,302	188,019
충청북도	53,997	54,540	60,596	51,778	60,257	79,156	87,202	85,029	93,479	102,689	108,278	135,761
충청남도	51,087	56,112	63,102	54,405	62,946	85,287	96,156	94,269	104,369	129,384	136,240	166,849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광주광역시	61,461	62,968	72,263	61,134	66,627	96,034	105,835	104,371	107,369	117,261	133,128	175,514
전라북도	65,038	64,550	71,348	61,671	69,310	97,700	104,991	97,378	100,909	107,380	110,517	144,854
전라남도	47,704	48,103	48,964	43,472	50,467	67,486	74,850	71,452	73,146	76,981	84,831	102,106
대구광역시	193,010	197,958	229,063	178,382	207,310	247,425	260,252	261,851	274,041	299,370	317,298	409,780
경상북도	100,150	105,733	110,191	90,309	106,308	138,263	144,914	139,180	145,771	164,336	170,127	209,419
부산광역시	322,611	330,490	386,171	265,216	298,793	377,021	419,620	424,762	457,550	492,759	508,310	605,629
울산광역시	-	-	57,079	41,987	47,539	66,953	75,099	73,465	82,233	95,862	103,463	132,419
경상남도	181,157	182,242	115,741	106,962	128,446	172,436	191,903	195,605	216,128	243,803	256,954	313,140
제주특별자치도	28,019	27,999	34,379	28,726	32,695	43,078	47,941	46,937	47,620	52,877	52,727	61,384
수도권	2,259,077	2,419,891	2,700,233	1,915,870	2,295,435	3,146,226	3,732,337	3,954,267	4,372,360	4,833,855	5,209,478	6,464,008
비수도권	1,218,968	1,249,188	1,379,791	1,099,737	1,262,384	1,656,899	1,804,922	1,791,219	1,916,303	2,109,980	2,227,713	2,768,34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1,389,253	11,839,353	11,804,158	13,291,892	15,310,489	17,037,716	18,692,522	20,993,786	23,786,980	25,904,462	29,938,904	32,033,272	34,865,368
서울특별시	5,363,656	5,544,528	5,546,364	6,116,211	6,853,958	7,477,095	8,091,966	8,748,269	9,675,984	10,272,028	12,139,052	13,074,083	14,501,785
인천광역시	401,891	425,039	415,272	482,935	561,600	625,956	599,233	735,227	879,457	1,034,627	1,211,119	1,278,336	1,342,431
경기도	2,286,273	2,315,986	2,295,495	2,649,376	3,096,263	3,516,496	3,964,119	4,487,030	5,168,288	5,775,204	6,771,365	7,197,805	7,812,065
강원도	151,104	156,555	152,179	165,258	185,766	203,991	224,965	256,076	311,603	354,613	428,644	455,411	500,267
대전광역시	214,733	222,549	223,634	249,724	291,142	344,099	386,678	431,048	485,935	549,267	603,476	654,554	725,976
충청북도	156,922	167,315	165,595	191,099	215,214	246,843	280,857	315,661	362,588	401,061	461,714	509,191	565,176
충청남도	204,964	227,203	223,395	256,015	297,440	321,090	362,813	419,048	522,277	559,648	644,484	681,426	705,658
세종특별자치시	-	-	-	-	-	15,596	20,134	35,565	52,281	70,129	96,621	115,306	136,842
광주광역시	215,314	230,858	225,484	261,748	290,992	332,504	366,753	419,175	477,475	571,167	635,308	705,366	787,557
전라북도	166,014	175,529	180,765	204,204	233,999	264,496	287,000	330,893	382,698	425,107	466,378	522,849	567,908
전라남도	125,288	134,779	139,646	154,870	184,523	215,534	231,664	288,288	332,015	378,195	436,013	480,061	546,020
대구광역시	460,935	485,634	485,386	567,247	698,795	767,975	869,489	1,054,278	1,204,080	1,289,495	1,399,940	1,511,937	1,558,678
경상북도	242,730	258,536	266,983	307,631	348,668	395,262	449,969	530,235	584,829	624,865	721,234	725,960	779,849
부산광역시	750,568	800,490	798,693	910,880	1,080,274	1,192,425	1,293,613	1,454,994	1,636,840	1,773,493	1,966,115	2,069,746	2,185,365
울산광역시	176,080	182,564	177,553	203,084	262,708	312,273	360,168	411,320	445,885	459,411	470,236	463,646	488,613
경상남도	401,305	437,139	431,950	488,154	608,961	688,279	766,265	912,174	1,035,718	1,069,070	1,144,051	1,240,639	1,300,121
제주특별자치도	71,476	74,649	75,764	83,456	100,186	117,802	136,836	164,505	229,027	297,082	343,155	346,953	361,055
수도권	8,051,820	8,285,553	8,257,131	9,248,522	10,511,821	11,619,547	12,655,318	13,970,526	15,723,729	17,081,859	20,121,536	21,550,224	23,656,281
비수도권	3,337,433	3,553,800	3,547,027	4,043,370	4,798,668	5,418,169	6,037,204	7,023,260	8,063,251	8,822,603	9,817,368	10,483,048	11,209,087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7. 도·농 소득격차

• 농가소득이란 경상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액)과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비경상소득(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한 총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함

(단위: 천원,%)

	1992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농가소득	13,075	20,292	18,658	30,503	32,121	37,215	37,197
도시근로자가구소득	16,309	22,771	28,659	39,025	48,092	57,800	58,613
도·농소득격차	80.2	89.1	65.1	78.2	66.8	64.4	63.5

* (주) 1. 통계청은 2017년 가계동향조사 공표 시부터 연소득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함 (통계청 고시 제2016-396호)
 2. 도·농소득격차=농가/도시×100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발행일 2021. 04. 23.
기획 국토연구원
발행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발행인 강현수
연구진 김태환, 김은란, 신휴석, 이혜민, 박미래, 이해진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www.krihs.re.kr
044) 960-0114 / FAX 044) 211-4760
편집제작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SSN 2733-5968